

“팔아도 남는 게 없어요” 자영업자 고물가 절규

올리브유·간장 등 식재료 가격 줄줄이 인상 “장사하기 힘들어” 알바 안 쓰고 유통 수수료 줄이려 직접 식자재 구입 등 전전공금

“2만원을 밑돌던 간장에 2만5000원까지 올랐어요. 그렇지 않아도 손님들의 지갑이 닫혔는데 팔길까지 끊길까 가격도 올리지 못합니다.”

6월 들어 간장, 김, 올리브유부터 초콜릿 등 식품업체들이 일제히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광주·전남 자영업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끝없이 치솟는 물가에 지역 자영업자들은 ‘팔아도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한다. 고물가에 식자재 가격까지 오르면서 경영난에 허덕이던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늘고 있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광주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 폐업 공제 명목 지급액은 149억원(1195건)으로 전년 동기(112억원·1029건) 대비

33% 늘었다. 전남에서도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128억원(1122건)으로 전년 동기(1046건·107억원)에 견줘 19.6% 늘었다.

광주시 남구 백운동에서 10년째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정모(70)씨는 “IMF와 코로나 사태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한탄했다.

지난해까지는 하루 평균 손님이 100여명이었지만, 올해는 10명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씨는 “당장 손님이 줄었다고 반찬 갯수를 줄일 순 없다”면서 “14ℓ에 2만원 정도였던 간장 가격이 최근 2만5000원까지 올랐고 된장도 마찬가지다. 고물가에 채소며 모든 식자재가 올랐고 식료품 가격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반찬을 만들수록 적자다”고 푸념했다.

남구 봉선동에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중범(40)씨 부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나마 채소·야채 등 가격은 등락이 반복되지만 초콜릿이나 식료품 등 공산품은 오르기만 하고 다시 내리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다.

김씨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썼는데 인건비라도 줄이려 들어서 일하고 있다”면서 “하루 12시간씩 꼬박 일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자영업자들은 식재료나 식료품 가격이 인상됐다고 덩달아 물건을 올리려는 건 어렵다고 토로한다.

코로나가 끝난 후 유제품과 밀가루 등의 가격이 계속 오르자 지난해 빵 가격을 2~300원 올렸는데, 손님들이 발길을 끊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주로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동네빵집 특성상 손님들이 가격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품목생산을 중지하려는 자영업자도 있다.

남구 서동에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58)씨는 박씨는 “초코빵이 많이 팔리지는 않지만 가끔 동네 아이들이 찾은 때가 있어 만들어왔는데, 초콜릿 가격이 오른다니 그나마도 부담이 돼 아예 만들지 말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품받는 유통비를 줄이려고 직접 식자재 구입에 뛰어들 자영업자들도 있다.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한 김밥집 사장 황지훈(44)씨는 오전10시께 북구 각화동 도매시장에서 직접 사온 식재료들을 가게로 나르느라 여념이 없었다. 가게 입구에는 오이와 당근, 버섯 등의 상자가 차곡차곡 쌓였다.

몇 년전까지는 유통업체를 통해서 식재료를 구입했다는 황씨는 고물가에 조금이라도 재료를 아끼면서 신선한 재료를 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매시장 새벽 경매를 통해 직접 재료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씨는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지만 그걸 당장 김밥 가격에 반영하기는 어렵다. 가격 부담에 참기름

에 식용유를 섞어쓰는 가게도 있는데 저렴한 재료를 쓰면 손님이 줄어들게 돼있다”며 “결국 유통수수료나 인건비를 아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닫은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식비 부담에 외식과 배달을 줄이고 있다는 박신혜(48)씨는 “요즘 국밥도 1인분에 1만2000원이 다. 저렴한 김밥이나 빵 종류를 점심에 자주 먹었는데 가격이 줄줄이 오른다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외식업계는 물가 안정에 협조해달라는 정부 요청에 그동안 가격 인상을 미뤘지만 원료비가 오르고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더이상 인상을 미룰 순 없어 이달부터 가격 인상에 나섰다. 조미김 가격이 평균 15% 올랐고, 올리브유는 33%·참기름은 15% 인상됐다. 초콜릿의 주원료인 코코아 가격 급등에 따라 초콜릿 제품 가격은 평균 12% 올랐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폐선박 해체 중 폭발사고로 근로자 숨져

목포서...안전수칙 준수 여부 조사

목포지역 조선소에서 폐선박 해체작업을 하던 40대가 폭발사고로 병원치료를 받다 이틀만에 숨졌다.

3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40대 A씨가 지난 30일 오후 4시 30분께 목포시 연산동 한 조선소에서 선박 절단작업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났다.

진전에 중증 화상을 입은 A씨는 서울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1일 숨졌다.

A씨와 함께 작업하던 70대 중국인 B씨는 가벼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

다. 인근에 있던 다른 작업자 C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산소절단기로 절단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현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가 현장에서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꺼 주변으로 확산하지 않았다. 해경은 합동 감식을 통해 폭발 원인과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광주지방노동청은 해당 조선소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고용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직원

장성경찰, 30대 구속

“갑질당했다”는 등의 이유로 고용주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30대 직원이 구속됐다.

장성경찰청은 3일 자신의 고용주를 살해한 3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6일 밤 10시께 장성군의 한 제조·판매업체 사업장에서 50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7일 오전 8시께 경찰에 스스로 전화해 “B씨가 주차장에서 쓰러져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한 결과 타살 흔적이 확인돼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3년 넘게 B씨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는데, 평소 나에게 갑질하는 등 여러 불화 등이 겹쳐 일이 벌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재 기자 yjyou@

말다툼 끝에 친동생에게 흉기 휘두른 형

광주광산경찰, 구속영장 신청

동생과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철창 형의 갈림길에 섰다.

광주광산경찰청은 3일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자택에서 20대 동생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동생과 갈등을 겪었고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호국보훈의 달 ‘태극기 화단’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3일 오전 광주시 북구청 광장에 태극기 화단이 조성됐다. 산책 나온 어린이들이 화단 주변으로 손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퍼블릭 전환 골프장 옛 회원 할인약정 승계 안돼”

대법 “체육시설법상 회원 미포함”

회원제 골프장이 운영방식을 대중제(퍼블릭)으로 변경하면 기존 회원들과 맺은 요금 할인 약정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대법관 서경환)는 A씨 등이 골프장 운영업체인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지난 2010년 출전에 있는 한 회원제 골프장 운영사로부터 회원권을 분양받았다. 하지만 운영사는 2015년 재정난을 이유로 골프장 운영방식을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A씨 등과는 ‘회원권을 포기하는 대신 당사자나 가족 1명에게 종신으로 할인요금을 적용한다’는 합의를 했다.

이후 2016년 운영사는 건설업체인 B사에 골프장을 양도했고, B사는 지난 2019년 이를 부동산 투자회사에 매도했다. 이 투자회사는 골프장 시설을 다른 회사에 임대해 대중제로 운영토록 했다.

골프장 측은 2020년 A씨 등에게 “최초 운영사와 맺은 합의에 따라 대응할 수 없다”고 통지했고, A씨 등은 골프장 측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B사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요금할인 혜택을 받은 A씨 등이 체육시설법상 ‘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골프장 영업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뀌면서 더는 회원이 존재하지 않게 됐다”며 “건설사가 골프장을 양수했다고 보더라도 합의서상의 의무가 체육시설법상 승계되는 ‘회원’과 약정한 권리·의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울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